

# 레이몽 아롱의 다원적 자유 개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에 맞선 전후 지식인의 방향모색\*

김민혁 | 전남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공공지식인이었으며 전후시기 프랑스와 유럽에 팽배했던 이념적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의 원인 및 해악을 냉철하게 분석하였고 현대사회에서의 '자유'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한 이론가였던 레이몽 아롱의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제시한다. '지나친 확신'과 '열정' 대신에 '회의'(懷疑)와 '이성'(理性)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신중하고 절제된 윤리의식을 갖춘 참여적 지식인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아롱의 사상과 실천이 시사하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국내 학계에서 그의 사상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그가 제시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오늘날 극단주의와 독선주의가 횡행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현재성과 함의를 지님을 주장한다.

주제어 | 레이몽 아롱, 전후 자유주의, 독단주의, 광신주의, 극단주의, 절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466). 원고에 대해 사려깊은 비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조대근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mk841@jnu.ac.kr

## I. 서론

극단주의(extremism)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목표나 교리(doctrine) 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타인의 기본권이나 존엄성을 과도하거나 무자비한 형태로 제약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독단주의적 이데올로기 혹은 태도로 정의된다.<sup>1)</sup> 오늘날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양극화와 갈등의 문제 역시 극단주의적 태도가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전개되고 있다. 정치학계에서도 전 세계적인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 및 분석과 연구들은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어왔다.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지구촌 각지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대량 이민이나 난민문제 등으로 촉발된 급격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 변동이 2차대전 이후 확립되어 이어져 온 ‘전후 자유민주주의’(postwar liberal democracy) 체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온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극단적인 소수의 목소리가 더 쉽고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는 분석을 제시한다(Mounk 2018).

극단주의에 관한 최근의 주된 논의들이 주로 비(非)자유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대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오고 있지만, 극단주의적 태도 혹은 경향성이 반드시 특정한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만 발견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 확산의 이면에는 전문가-엘리트 그룹의 독선적 태도 및 지나친 영향력(즉, 테크노크라시)에 대해 누적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단과 과도한 열정으로 무장한 진보주의 좌파 그룹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은 오늘날 자유주의가 처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와 절제의 에토스를 복원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성찰로도 이어지고 있다

1) 참고로 옥스포드 영어사전(<https://www.oed.com/dictionary>)에서는 ‘극단주의’(extremism)를 주로 정치적 혹은 종교적 견해에 있어서 불법적, 폭력적, 혹은 여타의 극단적 조치들을 옹호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Cherniss 2021; Fukuyama 2022; Müller 2016; Walzer 2023).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를 비롯하여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등의 우리 시대의 저명한 공공지식인들이 최근 들어서 절제(moderation)나 열린태도(open-mindedness)와 같은 덕목을 자유주의의 핵심가치이자 근본정신으로 부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사실, 다양한 사상적 전통과 상황들 속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 가운데 일부는 교조화되거나 독선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실천되기도 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다.<sup>2)</sup>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맹신하는 근본주의적 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넓은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전통은 특정한 교리나 가치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주장하는 태도가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지향에 역행하는 중대한 위험요소라는 인식을 공유해왔으며 독단주의와 교조주의에 맞서 싸워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이념갈등을 배경으로 발전해온 20세기 중반의 전후 냉전시기의 자유주의 전통(혹은 ‘냉전 자유주의’로 오늘날 종종 지칭되는 지적 전통) 속에는 당시 서구사회 내에서도 광범위하고 팽배하게 퍼져있던 이념적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의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상적 흐름이 형성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 지성인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 등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및 재조명 작업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박동천 2020; 유홍림 2019; Cherniss 2025; 2021; 2016; Craiutu 2021; 2017; Müller 2019; 2008).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공공지식인이었으며 전후 시기 프랑스와 유럽에 팽배했던 이념적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의 원인 및 해악을 냉철하게 분석하였고 현대사회에서의 ‘자유’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한 이론가였던 레이몽 아롱의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한다. ‘냉전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더불어 이 전통의 핵심인물인 아롱의 사상에

2) 현대 자유주의 전통의 내적 다양성과 논쟁적 성격에 관한 보다 심층적 논의로는 김민혁(2023)을 참고할 것.

관한 서구 학계에서의 관심도 2000년을 전후해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자유’ 개념에 대한 사회학적이면서도 이념적으로 좌(左)나 우(右)에 치우치지 않는 분석을 추구한 그의 사상에 대한 재발견 및 재평가 작업도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저명한 역사학자 토니 주트(Tony Judt)는 프랑스에 “자유주의적 사상을 회복시킨 가장 뛰어난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아롱이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묘사한 바 있다(Judt 2012, 257).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학계에서의 아롱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아롱의 저서에 대한 번역을 통한 소개의 노력이 진행되어와서 주로 1980년대에 『사회사상의 흐름』, 『권력과 지성』(아롱 회고록), 『산업사회의 미래』 등의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바 있지만, 대부분 절판된 지 오래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불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지식인의 아편』이나 『자유주의자 레이몽 아롱』(원제는 1981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Le Spectateur engagé*) 등의 한글 번역서가 출간 혹은 재출간되어 아롱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다소간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롱의 전쟁론 및 전략사상 분야를 다룬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롱의 정치사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나 저서를 국내 학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sup>3)</sup>

정치철학자 마크 릴라(Mark Lilla)를 비롯하여 아롱의 많은 논평가들이 말해왔듯이, 아롱이 보여주었던 지성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과도한 열정에 대한 경계와 절제에 토대하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성과 관용, 온당성(reasonableness), 회의주의(scepticism), 경험주의, 그리고 현실주의 등의 가치들에 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속해있었고 발전시켰던 프랑스의 자유주의 전통이 도덕과 철학적 체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영미식 자유주의(예컨대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와 구분되는 특징점으로는 자유를 정의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롱은 프랑스를

3) 아롱의 전략사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출간된 연구로는 도웅조의 『레이몽 아롱의 전쟁 그리고 전략 사상』이 있다. 아롱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현황과 관련해서는 같은책의 15쪽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도웅조 2021).

대표하는 자유주의 사상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queville)과 뱅자맹 콩스탕(Benjamin Constant)의 전통을 계승한다(Lilla 2023, xiii-xv).<sup>4)</sup>

지나친 확신과 열정 대신에 회의(懷疑)와 이성(理性)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신중하고 절제된 윤리의식을 갖춘 참여적 지식인의 모범적 모습을 몸소 보여준 아롱의 사상과 실천이 시사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정치제도의 만성적 불안정성을 경험했던 20세기 프랑스 사회에 대한 성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념적 극단주의와 양극화가 21세기의 새로운 조건들 속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해외 학계를 중심으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의 사유가 가진 풍부한 현재적 함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아롱의 자유주의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통해 국내 학계에서 그의 사상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가 제시한 자유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해 및 논쟁에 던져주는 문제의식 및 함의를 살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이념적 독단주의에 대해 지식인들이 느끼는 강력한 유혹 및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아롱의 비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전후 산업사회와 냉전이라는 거대화되고 복잡화된 환경 속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지니는 복합적 의미 및 정치적 과제들에 대한 아롱의 이론을 살펴본다. 이어서 IV장에서는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및 역량에 관한 아롱의 강조점을 검토한다. 결론(V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며, 아롱의 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구체적 함의를 논한다.

이 논문은 아롱의 자유주의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국제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롱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넓게 참고하며 그의 자유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롱의 자유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 가지는 함의들을 살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sup>5)</sup> 따라서 이념적 독단주의와

4) 아롱의 생애 및 사상에 관한 압축적이면서도 유용한 소개글로서는 Judt(2012), Lilla(2023), Manent(1994), Shils(1985) 등을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5) 또한 이 논문에서 분석 혹은 참고하는 1차 및 2차 자료는 한글이나 영어로 출간된 자료들로 제한

광신주의에 대한 아롱의 비판 및 자유에 관한 그의 구체적 사유를 소개하는데 본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아롱의 사상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촉발되기를 희망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아롱의 사상이 제시하는 현재성 있는 문제의식들을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더 심화시켜 고민해나가야 할 지점들에 관해 논의한다.

## II. 이념적 독단주의의 강력한 유혹과 해악

19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83년 사망한 레이몽 아롱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였으며 정치논평의 분야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당대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그러나 동시에 신중하고 거리를 둔 태도로—의견을 표출하는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sup>6)</sup> 그가 살았던 20세기 프랑스 사회는 좌파진영과 우파진영 사이의 극심한 불화가 지속되며 만성적인 정치적 혼란과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었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거대 이념에 교조적으로 빠져들어 도덕적 책임감과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과열된 이념적 열정에 지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sup>7)</sup> 전후 시기 프랑스 지성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좌파 실존주의 사상가 장 폴 샤프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 역시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에 지식인의 현실참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신중성,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거부와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며 전후 시기에 소련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체제

---

되며, 필자의 제한된 학문적 역량으로 인해 프랑스어로 출간된 자료들은 참고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이 점에 대한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다행히도 자유에 관한 아롱의 주요 저술들이 영어로 상당부분 번역되어 있고 이 텍스트들이 아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에, 국문과 영문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롱의 정치사상에 대한 국내에서의 관심을 접화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6) 현실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이자 역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관찰자’로서의 아롱의 학자로서의 복합적 자의식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재(2018, 66쪽의 각주 3)의 설명도 참고할 것.
- 7) 20세기 내내 프랑스 사회가 경험한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 미친 중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Judt(2012, 16-51)의 탁월한 설명을 참고할 것.

및 이를 추종하는 지식인 그룹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아롱의 입장은 당대 프랑스 지성계에서는 소수파에 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지적 헤게모니(hegemony)를 차지하고 있던 좌파진영으로부터의 상당한 공격을 감수해야 하는, 따라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신중함을 강조하고 과열된 정치적 정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한 아롱의 성찰적 태도는 동시대의 급진주의 운동가들로부터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반동 지식인이라는 비난이 섞인 평가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롱은 ‘68혁명’으로 잘 알려진 1968년 5월에 발생한 대학생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계기로 당시 68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젊은 세대 및 좌파진영으로부터 ‘반동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롱에 대한 이 같은 진영론적이고 편향된 비판의 분위기도 20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사회에서 좌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및 지적 헤게모니가 퇴조됨과 더불어서 이성과 절제된 태도에 기반한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아롱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와 재조명의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변광배 2022, 424-429; 이용재 2018).

전후 시기 유럽의 지식인 사회(그중에서도 특히 좌파 지식인 그룹)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과열된 이념적 열정과 독단주의, 그리고 교조주의적 태도에 대해 아롱은 특히 강한 경계심을 가졌고 이에 대한 비판작업으로써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된 『지식인의 아편』(영어제목은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이 1955년에 출간되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표현을 차용한 제목의 이 책에서 아롱은 당대 지식인들을 증독시킨 다양한 형태의 유토피아주의와 이념적 독선이 발생시키는 윤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고발한다. 책의 서문에서 아롱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의 결점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면서도 올바른 교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최악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지식인들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면서, 나는 곧 좌파, 혁명,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신성한 어휘들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는 그것들의 신화에 가해지는 비판을 통해 역사에 대한 숭배를 성찰하게 되었으며, 사회학자들이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의 사회 범주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인텔리겐치아’가 그것이다(Aron 2022, 11).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자칫 철 지난 반공주의의 전형으로 비칠 수도 있는 아롱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이 사실은 훨씬 깊고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sup>8)</sup>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소련 공산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식인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이중성’에 대한 그의 지적이다. 여기에서 아롱은 단지 그의 비판대상이 되는 좌파 지식인들의 위선적 측면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모순 혹은 아이러니를 구성하는 사회적·지적 토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아롱이 보기에 이 같은 태도가 지식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정치운리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의미했다. 그리고 위에 인용된 대목에서도 언급되고 있듯, 많은 지식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던 이념적 독단주의의 이면에는 ‘혁명’이나 ‘역사’ 등과 같은 거대관념에 대한 신성화와 도덕적 절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아롱은 누구보다도 마르크스를 탐독하였고 ‘사회주의’는 그의 젊은 시절(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시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프랑스 좌파진영의 ‘경제정책에서의 무능함’에 대한 인식은 그로부터 사회주의를 멀어지게 하였고, 냉전의 도래와 함께 심화된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의 독단주의와 교조주의는 아롱으로 하여금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8) 2022년 출간된 『지식인의 아편』 국역본에 대한 서평에서 역사학 연구자 원동필은 이 책에서 전개된 아롱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이 오늘날 한국 지성계에서 가지는 함의 및 효용성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표한다(원동필 2022).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시각은 『지식인의 아편』에서 아롱이 제시한 보다 넓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장에서 자세히 논하듯, 『지식인의 아편』에서 아롱이 비판하는 대상은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여) ‘독단주의적 이념’에 사로잡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부차화시키는 당대의 지적 풍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택을 하게끔 하였다(Aron 2021, 68-70; 2022, 14; Judt 2012, 266-267).

그렇다면 무엇이 전후 시기 지성계를 이끌던 많은 지식인들을 극단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이중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나? 아롱은 이들 지식인들의 과열된 이념적 열정 속에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구성하는 핵심관념들—대표적으로 ‘진보’나 ‘혁명’ 등의 관념들—에 대한 허구적이고 신비화된 신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대답한다. 예컨대 자유나 평등,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나 완전고용 등을 외치며 구제도에 대한 투쟁을 이끌어온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의 급진적 태도 속에서 아롱은 이데올로기적 열광을 부추기는 유토피아적인 형태의 진보라는 관념과 혁명의 신화를 발견한다.

아롱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진보’라는 관념과 ‘혁명의 신화’는 한편으로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양자가 대립적인 것은, ‘진보’라는 관념이 역사를 계속적이면서 발전적인 운동으로 보는 반면에 ‘혁명의 신화’는 일상적인 인간사의 흐름에 급격한 단절과 전환의 필요성 혹은 필연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관념은 역사결정론(historical determinism)적 시각과 결부된 이념적 독단주의 속에서 핵심적이며 보완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는 지식인들은 “마치 미래란 항상 과거보다도 훌륭하다는 듯이, 또 마치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당은 보수주의자들에 비해 **항상 옳은 것으로 여기**”[강조는 필자]는 독선적 태도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아롱은 강조한다(Aron 2022, 43, 57-58).

나아가 그는 역사의 방향과 사명에 대한 이들의 독선적 이해는 혁명과 이에 수반되는 폭력 및 잔혹함에 대한 무절제한 정당화와 허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아롱은 혁명이 때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며, 구체제의 폐해가 너무 크고 강고한 상황일수록 효율적인 혁신의 수행을 위한(불가피한 수단으로서의) 혁명의 정당성도 커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정치질서의 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낸 경우로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나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크가 주도한 혁명이 예시로 제시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같은 혁신과 변화의 필요가 과도한 형태의 혁명적 폭력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깊게 우려했던 문제는 “폭력을 미래 건설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지식

인들 사이에서 너무 넓게 퍼져있다는 점이었다. 한편에서는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과 그에 따르는 현실적 난관들에 대한 좌절감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적 폭력이라는 수단에 대한 신성화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의 욕구가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혁명의 신화’를 자발적으로 추종하는 길을 택하게 한 것이다(Aron 2022, 58, 63-64, 96-97).

‘혁명의 신화’가 정치적·윤리적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행위자라면 마땅히 진지하게 여기고 일정한 존중을 표해야 할 기본적인 규범과 기준선을 파괴하고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롱은 혁명의 신화가 동반하는 인류의 궁극적이고 단일한 목적에 대한 확신을 거짓된 ‘허영’으로 보았으며, 역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이상 숭배적 태도가 이념적 ‘광신’을 낳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이념적 독선에 빠진 이들은 “자기만이 혼자 가치 있는 유일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며, ‘타자’는 다만 제거해야 할 적”이라는 시각에 갇히게 된다. 또한, 과도한 확신에 빠진 이들은—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복합적인 결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심성’마저 상실하게 되며, 그들이 믿는 ‘숭고한 목적’ 하에 ‘끔찍한 수단’들을 무절제하게 허용하게 된다(Aron 2022, 214, 260-262).

아롱의 이 같은 역사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일원론적 독단주의에 대한 저항은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적 지향을 내세우며 냉전체제 하에 형성된 극단주의에 맞섰던—이사야 벌린(Isaiah Berlin)과 칼 포퍼(Karl Popper) 등으로 대표되는—전후 시기 자유주의(혹은 ‘냉전 자유주의’로 지칭되는) 전통의 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전통의 복합적 측면 가운데서도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은 이념적 극단주의와 광신주의가 생성되는 원인과 그것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체계적인 형태의 사회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념적 열정에 있어서 절제와 관용의 태도,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스스로를 분명히 ‘자유주의자’로 생각했고, 냉전체제와 현대 산업사회 하에서의 자유의 문제에 깊게 천착했던 아롱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여러 강연과 저술을 통해 자유에 대한 복합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의 필요성

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발전시켜나갔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내용을 증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Aron 2022, 13; Craiutu 2021; Müller 2008).

### III. 자유에 대한 복합적이고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양차 대전과 전간기의 혼란, 그리고 전후 냉전질서 속에서 살아갔던 아롱은 국제 정치와 군사전략에서부터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방대한 분량의 저술과 논평을 남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자유'라는 주제에 직접 천착한 저술은 두 권의 짧은 책이 있으며, 그가 196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y)에서 행한 강연을 기초로 출간된 『자유에 관한 에세이』(영어제목: *An Essay on Freedom*)와 그의 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 퇴임 강연을 토대로 출간된 『자유와 평등』(영어 제목: *Liberty and Equality*)이 이에 해당한다.<sup>9)</sup>

아롱의 자유 개념에 관한 탁월한 리뷰 논문을 최근에 출간한 사회사상 연구자 크리스토퍼 어데어-토테프가 지적하듯, 비록 아롱이 '자유'라는 주제에 천착한 저술은 두 권뿐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 그가 가졌던 관심의 깊이와 중요성은 상당하였다(Adair-Toteff 2024).<sup>10)</sup> 특히 이 두 저술을 통해 아롱이 체계적으로 보여준 자유에 대한 복합적이고 사회학적인 접근과 분석은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과 더불어 20세기 중반의 자유 담론의 정수를 이룬다(Craiutu 2021). 나아가 철학적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과 복잡한 권력 관계가 얹힌 현대사회의 맥락 속에

9) 영어권 학계에서 아롱의 자유에 관한 두 권의 저술은 한동안 잊힌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어로는 1965년에 출간되었으며 1970년에 영역본이 첫 출간된 *An Essay on Freedom*은 도서관 카탈로그 아카이브인 월드캣(<https://search.worldcat.org/>)의 검색결과 초판 간행 후 절판된 상태로 확인되며, 2013년에 불어로 첫 출간된 *Liberty and Equality*의 영역본은 2023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들의 국역본은 각각 『자유냐 평등이냐』(1983년 출간, 현재 절판됨)와 『레이몽 아롱의 자유와 평등』(2023년 출간)으로 출간되었다.

10) 아롱의 사상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도 '자유'에 대하여 그가 발전시킨 사유에 대한 국제학계의 관심은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중요한 연구들로는 Cherniss(2021), Craiutu(2017, 2021), Stewart(2020) 등이 있다.

서 자유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독단화된 형태의 자유 이념에 대해 비판하며 이념적으로 절제된 형태의 이상을 지향한 그의 시각은 교조화된 형태의 자유관이 횡행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롱의 자유 개념과 관련해 우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의식적으로 그가 ‘자유’라는 관념을 단수형(singular)이 아닌 복수형(plural)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1963년의 버클리 강연에서 그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을 인용하며 ‘자유’라고 하는 관념은 ‘국가의 자치권’, ‘법적인 권리보장’, ‘사상과 표현과 저술의 자유’,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공화국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유들’(freedoms)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freedom)가 구현된다고 말한다. 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고별 강연에서 그는 보다 명시적으로 ‘자유들’(liberties)에 관한 논의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임을 밝히기도 한다(Aron 1970, 13-14; 2023, 1-2).

자유 다원성(plurality)에 대해 아롱이 여러 곳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논의가 등장하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첫째로, 아롱은 자유의 두 측면(즉, ‘freedom from’의 측면과 ‘freedom to’의 측면)이 긴밀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1)</sup> 몽테스키외와 토크빌의 경험주의적이고 사회학적 관점을 계승한 아롱은 ‘자유’에 있어서도 본질주의적이고 보편적인—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의미를 탐구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자유들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방향을 택한다. 왜냐하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마다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이 상이하며, 한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자유들(liberties)이 다른 사회적

11) 아롱의 이러한 접근은 (당대의 절제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이 중 한 명인) 이사야 벌린이 1958년 옥스포드 대학 취임강연문 “Two concepts of liberty”을 통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전통을 철학적으로(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벌린 또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두 측면이 자본주의 체제하의 심각한 불평등과 구조적인 격차의 존재 등과 같은 현실적 맥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관련한 논의는 김민혁·조대근(2024, 246) 참조.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국외여행의 자유’는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열려있던 자유였다. 이처럼 아롱은 자유가 본질적으로 다원적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복합적인 맥락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보았다(Aron 1970, 13; 2023, 8; Berlin 2014).

또한, 아롱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s) 12권 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인 “정치적 자유는 확실성(surety), 혹은 적어도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관해 가진 의견에서 유래한다”를 인용하며,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즉, 비간섭과 개인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유)가—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국가 체제하에서—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이나 단결권 등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자유’를 통해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나 노동조합 등과 같이 자신의 기본적 권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을 필요로 하며, 이 같은 공적인 조직과 규칙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개인들이 그 의무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한—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으로 간주 될 수 없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할 권리이다”라고 규정한다(Aron 2023, 5; 1970, 13; Montesquieu 1997, 155 [강조는 추가되었음]).

이처럼 아롱이 자유의 다원성과 사회적 맥락성, 그리고 정치적 복합성을 강조한 데에는 ‘자유’를 둘러싸고 당대에 여러 유형의 교조적인 이론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현상에 대해 가졌던 진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가 경계했던 첫 번째 유형의 교조주의(아롱의 표현에 따르면 ‘democratic dogmatism’)는 진정한 ‘인민의 의지’(the will of the people)의 구현을 내세우며 사회의 다원성이나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적 자유들(예컨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손쉬운 희생이나 양보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물질적 평등과 풍요를 지칭하는 “실질적 자유들”(real freedoms)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 및 권리수호와 관련된 규범 및 제도들을 단지 허울뿐인 “형식적 자유들”(formal freedoms)로 격하시켰

던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이 관점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두 번째 유형의 교조주의(아롱의 표현에 따르면 ‘liberal dogmatism’)는 ‘개인의 자유’와 ‘자의적 권력에 대한 제한’을 절대시하는 형태의 자유주의로 오늘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로 분류되는 하이에크(F. A. Hayek)의 자유 개념이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다. 하이에크에 대한 상세한 논평에서 아롱은 그가 한편으로는 국가 및 권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하이에크가 그토록 신봉했던 ‘일반규칙들’(general rules)에 의한 지배 역시도 ‘권력자’에 의한 지배 못지않게 억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점을 그가 간과했다고 비판한다(Aron 1970, 4, 97-98; 1994, 82).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만병통치약’식 해법이 아닌, 권력과 자유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이해라는 점을 아롱은 강조한다. 요컨대, “자유를 위한 유일하게 옳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자유(지상)주의적 교조주의’와 ‘민주적 교조주의’가 공유하는 오류는 ‘자유’를 둘러싼 복합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하고 최종적인 공식’을 신봉하고 추구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주의적 관점이 독단주의적 태도를 낳은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Aron 1970, 157).

인간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대부분 형태의 자유가 권력과 얽혀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 우리의 행위들이 대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의존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특정한 자유의 보장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연관된 다른 행위나 다른 형태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이라고 아롱은 설명한다. 예컨대 특정한 대중시위를 조직하고 실행할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자유의 실현에 상충하는 형태의 행위들, 가령 대중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자유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자유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공적 보장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권력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며, 허용되는 행위와 제약되는 행위의 범위를 재설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아롱이 빈번하게 드는 예시 가운데 하나는 노조 활동의 자유가 노동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노동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고 임금협상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있어 보다 넓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은 개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자유의 제약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유가 가지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영향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롱이 ‘자유와 권력의 변증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자유의 복합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앞서 설명한)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이다(Aron 1970, 155-158; 2023, 2-3).

앞선 논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아롱이 가장 경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특정한 유형의 ‘추상적인 자유’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과 효과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태도였다. 그가 특히 염두에 두었던 당대에 풍미하고 있던 자유의 교조화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자유 실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수단으로 본 마르크스주의 좌파의 교조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행정권력의 집중화’도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본 하이에크 학파의 시장주의적 교조주의였다. 그가 보기에 이 같은 자유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독단적 신념이야말로 그 시대의 자유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롱은 일견 교과서적인 처방으로 들리기도 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다원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 민주적 절차와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한다(Aron 1970, 155-158; 2023).

#### IV.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적 역량과 감수성:

##### 책임감, 사려분별, 절제의 에토스

이념적 독단과 광신주의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정치윤리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아롱의 노력은, 전체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당대에 유행했던 여러 형태의 극단주의에 대항하여 ‘절제’

(moderation)<sup>12)</sup>와 ‘사려분별’(prudence)<sup>13)</sup> 등과 같은 반(反)극단주의적 에토스를 대안적인 형태의 정치적 역량이자 감수성으로 지향한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sup>14)</sup> 전체주의적 통치의 본질을 ‘이데올로기’와 ‘테러’로 분석하였으며 근대사회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고립과 소외, 외로움의 감정을 ‘폭민’(mob)의 출현과 연관 지어 설명한 아렌트와 유사하게(Arendt, 1994) 아롱 역시도 전체주의를 구성하는 사회적·심리적·이데올로기적 동인에 대해 깊게 파고들었다. 또한, 무고한 개인에게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하고 정당화하는 극단주의적 정치적 교의(doctrine)들의 이면에는 ‘완벽한 사회’에 대한 일원론(monism)적인 독단과 강박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던 벌린과 유사하게(Berlin 2013b, 26-28), 아롱 또한 ‘하나의 계급, 하나의 행동의 기술,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체계’의 절대성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지식인을 포함한) 당대 많은 사람들을 ‘극단주의적 태도’와 부정의하고 잔인한 수단들마저도 정당화하는 ‘광신적 태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된 관심 또한 절대적 진리와 유토피아의 도래를 확신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의 대척점에서 이러한 ‘구원의 예언자’들과 ‘재난의 예고자’들의 결정론적(deterministic) 메시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감수성 차원의 대안 모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Aron 2022, 413-420).

주지하듯, 아롱의 사유는 아렌트나 벌린, 니부어, 포퍼 등과 같이 당대에 반(反)전

12) 아롱의 사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 핵심어 가운데 하나인 ‘moderation’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에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용’이나 ‘온건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곤 하는데 두 단어 모두 다소 순응적인 태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moderation’이 수반하는 복잡성과 역동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moderation’을 (극단성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는 의미에서의) ‘절제’라는 단어로 옮긴다. 참고로 옥스포드 영어사전(<https://www.oed.com/dictionary>)에서는 ‘moderation’을 “the quality of being moderate in conduct, opinion, etc.; avoidance of excess or extremes in behaviour; temperateness, self-control, restraint”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prudence’ 역시 복합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맥락에 따라서 ‘사려분별’, ‘현명함’, ‘신중함’, ‘세심함’, ‘실천적 지혜’(혹은 ‘실천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아롱의 경우 ‘prudence’를 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일반적 법칙에 대한 이해를 아우르는 능력, 그리고 도덕주의(moralism)와 권력정치주의(Realpolitik)라는 두 극단을 피하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한다. 자세한 논의는 Aron(1985, 274-284, 특히 283-284) 참조.

14) 아롱의 사상에 대한 분석에서 ‘moderation’과 ‘prudence’의 측면을 강조한 참고 할 만한 앞선 연구들로는 Cherniss(2021), Craiutu(2017; 2021), Manent(1994) 등이 있다.

체주의 성향을 공유하면서 공산주의에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Müller 2008). 이와 동시에,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절제된 자유주의’(‘tempered liberalism’ or ‘moderate liberalism’)의 전통<sup>15)</sup>에 아롱이 독창적으로 기여한 가장 뚜렷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 신중함과 절제된 태도에 기반한 지적인 평정심(lucidity), 냉철한 현실 인식 및 판단능력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극단의 시대에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공적인 윤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했다는 점 등에 있다. 아롱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지식인의 길을 택하며 그는 ‘참여하는 관찰자’<sup>16)</sup>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열정보다는 이성, 확신에 찬 광신보다는 자신이 믿는 바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회의주의를 선호한 아롱은 그의 비판자들로부터 ‘냉담한 방관자’라는 비난을 받은 하였으며, ‘진실’과 ‘명확성’에 대한 그의 강한 욕구는 양극화된 이념대립의 사회적 구도 속에서 그 스스로를 외롭고 고립된 위치에 자리하도록 이끌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롱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나름의 강한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그럼으로써 이념적 과잉과 혼란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윤리적 지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Aron 2021, 63, 66-67, 74-82; 2022, 420; Craiutu 2017; Judt 2012, 310, 317-320, 334).

아롱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관찰자로서의 지식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정치적 결단을 피하는 ‘소심증’(timidity)이나 어정쩡한 ‘절충주의’(eclecticism)와 분명히 구분한다.<sup>17)</sup> 이 점에 있어서 아롱은 지식인으로서 그가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던 인물로 독

15) ‘tempered liberalism’(절제된 자유주의)이라는 용어는 Cherniss(2021)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이 전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민혁·조대근(2024)을 참고.

16) 불어의 원래 표현은 ‘spectateur engagé’이며 이 표현은 영어로는 주로 ‘engaged spectator’나 ‘committed observer’로 번역된다. 기존의 한국어 문헌에서는 주로 ‘참여하는 방관자’, ‘참여적 방관자’ 등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방관자’라는 단어는 무책임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선 수식어(즉 ‘참여하는’)와 결합하였을 때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아롱이 발언한 문맥을 면밀히 고려하면 학자로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와 연관되는 ‘관찰자’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는 ‘참여한 관찰자’로 표현한 이용재(2018)의 논문이 있다.

17)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사상사 연구자 아우렐리안 크라이우투는 최근 저서에서 ‘moderation’이 극단주의에 대항한 싸움에서 대담하면서도 투지 있는 신념(fighting faith)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Craiutu 2024).

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를 언급한다. 그가 보기에 베버는 “역사의 경험과 정치에 대한 이해, 진실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결단력과 행동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로부터 아롱은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과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그가 “평생 복종하고 싶은 두 개의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이처럼 아롱에게 있어 ‘냉철한 관찰자’의 태도는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위한 핵심요소이지 이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방관과는 거리가 멀었다(Aron 1970, 158; 2021, 55).<sup>18)</sup>

다원주의와 반(反)역사결정론에 대한 그의 평생의 헌신 또한 정치와 역사에 관한 신중하고 경험적인 관찰을 토대로 그가 도달한 선택이자 결단의 결과였다. 20대 중반의 시기였던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에 체류하며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독일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파시즘화 되는 현상을 직접 목격한 아롱은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속한 시대에 있어서 정치 활동이란 ‘단순한 심심풀이’나 ‘부수적인’ 지적 유희의 대상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결단’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질적으로 자유주의자였으며 폭력을 싫어하였고 메시아(messiah)사상이나 밀레니엄 사상과 같은 유토피아주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졌던 그는 ‘역사적 섭리’나 ‘불변의 법칙’과 같은 역사결정론적 시각이 ‘미래의 비밀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한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프로메테우스적(Promethean) 야망’은 ‘전체주의의 지적 기원의 하나’라고 말하였다(Aron 2021, 63, 75, 81-82; 2022, 266-267).

별린이 현대사회의 점증하는 획일성과 사회공학적 경향에 대한 ‘건전한 제동장치’로서 자유주의의 절제된 이상을 제시한 것과 유사하게(Berlin 2023a, 18-20), 아롱 또한 다원주의적 관점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절차적 장치들(예컨대 헌법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현대 산업사회 체제하에서 점증하는 ‘프로메테우스적 야

18) 잘 알려져 있듯, 1차대전 직후의 패전국 독일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보적 학생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강연(이후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출간)에서 베버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라면 ‘열정’, ‘책임감’과 더불어 사람 및 사물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능력으로서의 ‘균형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Weber 2021, 92-93).

망'을 제어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현대인들은 이 같은 과격한 유토피아주의에 특히 취약한데, 그 이유에 대해 아롱은 급속화된 기술적 혁신과 사회변화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느끼는 조바심(human impatience)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점진적 변화가 아닌) 절대화된 역사의 법칙에 의해 무(無)에서부터의 (*ex nihilo*) 재창조할 것을 부추기는 독단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을 든다. 이것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까닭은 그것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의 필수요소인—(종종 도덕적으로 위험한) '수단'과 (대의를 위해 추구되는) '목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기본적인 조심성과 신중성마저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즉, “폭력 자체가 역사적이고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에 봉사한다고 믿어질 때, 폭력은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 된다”(Aron 1970, 158-159; 2022, 267-268).

결국에 이 같은 무(無)규범적 광신주의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비판적 정신과 책임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아롱은 보았다. 이러한 시민은 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의 불완전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도 관용과 존중할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린다. 물론 어떠한 형태의 독단과 광신도 경계했던 그였기에, 아롱은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자유'조차도 지고지선(supreme)의 목적 혹은 가치는 아니라는 의견을 명백히 밝힌다. 분석적 관점에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는 '더 상위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그것이 '필수적' 수단인 것은 시민들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같은) 지적(intellectual)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만이 자신의 이성(reason)과 도덕의 능력을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성적 인간'이라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는 그저 '욕망이 해방된' 사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성적 판단과 책임에 기반하여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실현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정당한 질서를 형성하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아롱이 바라본 정치적 자유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Aron 1970, 160-161; 2022, 45-49).

## V. 맺음말: 아롱의 자유론의 현재성과 함의

아롱이 강조한 절제되고 신중하며 사려분별 있는 자유주의적 에토스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설 자리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롱의 품격있고 수준 높은 형태의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아직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떨어진 이상인 것일까? 지속되는 분단체제로 인해 냉전체제의 유산이 여전히 크게 머물러있으며 ‘반공주의’와 결합되어 편협하고 왜곡된 형태의 ‘자유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역사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전통—특히나 전후(post-1945) 자유주의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높은 경계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유’라는 단어를 앞에 내세우며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반국가세력’이나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인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12·3 비상계엄사태(2024년 12월 3일)와 뒤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2025년 1월 19일) 등의 초유의 극단적 사태들은 독단화되고 광신주의화된 형태의 반공 권위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계엄사령부 2024; 김동춘 2021; 이나미 2021).

그러나 더 깊고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그리고 나아가 세계 주요 민주주의 사회들에서—극단주의가 비단 특정 정파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병리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민주적 정치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화와 타협, 최소한의 관용과 존중의 정신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범들에 대한 공격과 훼손이 우파 포퓰리즘을 필두로 한 다양한 형태의 ‘가짜 민주주의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갈등과 긴장의 수준이 높아진 자리에는 ‘헌법적 강경태도’(constitutional hardball)와 같이 정치적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적(enemy)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권한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도 2016-17년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기조를 거치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정치 진영들의 내부에서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 뚜렷하게 쇠퇴하였으며, 선

과 악이라는 도덕적으로 절대화된 이분법적 사고가 주요 정치인들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차태서 2021; 황두영 2023; Levitsky and Ziblatt 2018; Müller 2022).

이념적 광풍과 규범적 혼란의 시기의 한 가운데를 살아간 아롱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라는 단어가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에 관한 에세이』 서문에서 그는 “자유는 적들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럴듯한 주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압제정(despotism)에 대한 정당화로 빈번히 오용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여러 중요한 구분점을 갖지만, 오늘날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충실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의적 권력에 대한 제한’이라는 자유주의적 지향과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적 지향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롱의 이러한 시각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운데 하나의 절대적 우위성을 내세우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편협하고 교조적인 형태로—예컨대 ‘시장(market) 지상주의’나 ‘냉전적 반공주의’ 등의 형태로—이해하고 신봉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도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Aron 1970, 4-5).

또한,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 자유에 관한 아롱의 시각은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전후 자유주의 전통이 가진 넓은 지평과 깊은 윤리적 고려들을 보여주며, 특히 그가 제시한 ‘독단주의’나 ‘광신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과 자유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은 극심한 이념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참고하고 성찰해야 할 지점들을 던져준다. 아롱이 동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을 과열된 이데올로기적 열광으로 빠지게 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근대사회의 ‘유토피아적(utopian) 이상주의’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찾아내고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듯, 오늘날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 역시도 변화된 정치·사회적 조건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특히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게 된 환경 속에서—더욱 강화되는 독선주의와 광신주의의 경향성 및 폐단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sup>19)</sup>

아롱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 ‘자유주의’ 또한 이념적 광풍 앞에서 쉽게 교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조화된 신념은 맹목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목적의 추구 속에서 가치의 다원성과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정치적 결단과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조심성과 신중한 고려의 책임을 ‘대의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망각하게끔 만든다.<sup>20)</sup> 이것이 바로 아롱이 깊게 우려하고 비판하였던 ‘과잉된 이데올로기적 신념’으로 인해 당대 지식인들의 정치 윤리적 감수성과 도덕적 판단능력이 마비를 겪는 현상이었다. 내가—혹은 우리 진영이—옳다고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수단’을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며 나아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는 소위 ‘마키아벨리즘’적인 결과 지상주의적 현실주의는 양극화된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롱은 이 같은 ‘저속한’ 형태의 권력정치적(Realpolitik) 시각은 참된 의미의 ‘정치적 현명함’보다는 이념적 ‘광신’이나 ‘독선’에 맞닿아있음을 일깨워 준다.

글을 맺으며, 자유의 복합성과 (‘절제’를 중심으로 한) 반(反)극단주의적 에토스를 강조한 아롱의 자유관은 ‘자유’와 ‘독단’, 그리고 ‘광신’이 또 다른 형태로 결합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절제’와 ‘사려분별’ 등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태도 역시 (어떠한 정치적 덕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해법일 수는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적 고려 속에서 판단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오늘날과 같이 극단주의

19)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허위정보나 증독적 분노의 확산, ‘취소문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이 강화되며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논의로는 Rauch(2021)를 참고.

20)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형태의 극단화된 무규범적 결과주의를 아롱은 ‘저속한 형태(vulgar)의 마키아벨리아니즘(Machiavellianism)’으로 지칭하며 비판한다. 관련된 논의는 Aron(1994, 53-63)을 참고.

가 성행하는 시대에 ‘절제된 자유주의’가 갖는 중요성은 너무도 간과되기 쉬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아롱의 체계적인 고민과 논의는 절제의 에토스가 단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자유와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지향에 있어서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공동체 차원의 핵심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제업사령부. 2024. 제업사령부 포고령(제1호).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 (검색일: 2025.02.11)
- 김동춘. 2021. 『반공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서울: 필요한책.
- 김민혁. 2023. “자유주의 전통의 다양성과 논쟁성: 자유주의 위기담론 및 자유주의 연구방법론 고찰.” 『서강인문논총』 제66호, 341-70.
- 김민혁·조대근. 2024.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별린의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7권 제2호, 229-261.
- 도응조. 2021. 『레이몽 아롱의 전쟁 그리고 전략사상: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분석과 미래전쟁 방향』. 서울: 연경문화사.
- 원동필. 2022. “레이몽 아롱(변광배 역), 『지식인의 아편』(세창출판사, 2022), 432pp.” 『서양사론』 153호, 281-287.
- 박동천. 2020. “이사야 별린: 다원적 자유주의의 실천.” 『현대정치의 위기와 비전』, 237-264. 서울: 아카넷.
- 변광배. 2022. “옌긴이의 말.” Raymond Aron 저. 변광배 역. 『지식인의 아편』. 서울: 세창출판사.
- 유홍림. 2019. “이사야 별린(Isaiah Berlin)의 ‘현실감각’.” 『정치사상연구』. 제25집 2호, 39-67.
- 이나미. 202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이용재. 2018. “1968년 5월운동과 지식인의 양가주망.” 『프랑스사 연구』 제39호, 65-88.
- 차태서. 202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139-170.
- 황두영. 2023.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86포퓰리즘 넘어서기』. 서울: 출판사 클.
- Adair-Toteff, Christopher. 2024. “Raymond Aron’s Concept of Liberty.” *History of European Ideas* 50(8): 1433-44.
- Arendt, Hannah. 1994.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edition. San Diego: Harcourt.
- Aron, Raymond 저. Helen Weaver 역. 1970. *An Essay on Freedom*. New York: World

Publishing.

- Aron, Raymond. 1985. Franciszek Draus eds. *History, Truth, Liberty: Selected Writings of Raymond Ar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on, Raymond. 1994. Daniel J. Mahoney eds. *In Defense of Political Reason: Essays by Raymond Ar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Aron, Raymond 저. 박정자 역. 2021. 『자유주의자 레이몽 아롱』. 서울: 기파랑.
- Aron, Raymond 저. 변광배 역. 2022. 『지식인의 아편』. 서울: 세창출판사.
- Aron, Raymond. translated by Samuel Garrett Zeitlin. 2023. *Liberty and Equa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2013a. "The pursuit of the idea." Henry Hardy eds.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2013b. "My intellectual path." Henry Hardy eds. *The Power of Ideas* (Seco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 저. 박동천 역. 2014. 『이사야 별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 Cherniss, Joshua L. 2025. "The Burden of Loneliness and the Virtue of Solitude: On Raymond Aron and Albert Camus." *Society* 62: 72-82.
- Cherniss, Joshua L. 2021. *Liberalism in Dark Times : The Liberal Ethos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rniss, Joshua L. 2016. "A Tempered Liberalism: Political Ethics and Ethos in Reinhold Niebuhr's Thought." *The Review of Politics* 78(1): 59-90.
- Craiutu, Aurelian. 2017. *Faces of Moderation : The Art of Balance in an Age of Extrem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raiutu, Aurelian. 2021. "In Search of the Decent Society: Isaiah Berlin and Raymond Aron on Liberty." *Critical Review* 32(4): 407-433.
- Craiutu, Aurelian. 2024. *Why Not Moderation?: Letters to Young Radical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dt, Tony 저. 김상우 역. 2012. 『지식인의 책임』. 파주: 오월의봄, 2012.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First edition. New York, NY: Crown.

- Lilla, Mark. 2023. "Preface." Aron, Raymond. translated by Samuel Garrett Zeitlin. *Liberty and Equal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ent, Pierre. 1994. "Raymond Aron—Political Educator." Daniel J. Mahoney eds. *In Defense of Political Reason: Essays by Raymond Ar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translated by Anne Cohler, Basia Miller, and Harold Stone. 1997. *The Spirit of Law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unk, Yascha. 2018.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08. "Fear and Freedom: On 'Cold War Liber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1): 45-64.
- Müller, Jan-Werner. 2016.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üller, Jan-Werner. 2019. "The Contours of Cold War Liberalism (Berlin's in Particular)." Müller, Jan-Werner, eds. *Isaiah Berlin's Cold War Liberalism*,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 Müller, Jan-Werner 저. 권채령 역. 2022. 『민주주의 공부』. 파주: 월북.
- Rauch Jonathan 저. 조미현 역. 2021. 『지식의 헌법: 왜 우리는 진실을 공유하지 못하는가』. 서울: 예코리브르.
- Shils, Edward. 1985. "Raymond Aron: A Memoir." Franciszek Draus eds. *History, Truth, Liberty: Selected Writings of Raymond Ar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wart, Iain. 2020. *Raymond Aron and Liber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2023. *The Struggle for a Decent Politics: On "Liberal" As an Adj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eber, Max 저. 박상훈 역. 2021. 『소명으로서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A Preliminary Study of Raymond Aron's Pluralistic Conception of Freedom: A Postwar Intellectual's Struggle against Dogmatism and Fanaticism

Min-hyeok Kim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preliminary study of the liberal thought of Raymond Aron, a leading French sociologist and public intellectual of the 20th century, who soberly analyzed the causes and harms of ideological dogmatism and fanaticism in France and Europe during the postwar period and pondered the complex meaning of freedom in the modern world. Through the lessons and messages of Aron's thought and practice,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skepticism and reason instead of overconfidence and enthusiasm, and exemplified the role of an engaged intellectual with a cautious and moderate sense of ethics, this paper seeks to vitalize the discussion and study of his thought in Korean academic circles and show that his pluralistic concept of liberty involv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relevant for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liberty today.